

●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가족과 함께하는

선날 가정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 양산중앙교회

www.yangsanjungang.or.kr
경남 양산시 장동2길 14(북부동)
T. 055-386-2447 F. 055-388-2447

가족과 함께 하는 설날 가정예배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기 도 **가족중**

성경봉독 마태복음 18:18-20 **다같이**

¹⁸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¹⁹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²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말 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찬 송 445장 |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다같이**

1.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2.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3.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후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기도문 **다같이**

● 말씀 | 마태복음 18:18-20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사람의 한평생이 영원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짧은 인생 우리는 행복과 감사만 누리며 살아가도 부족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은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며 행복을 누리는 복된 날입니다.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찾고 깨달아 한 해 동안 늘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때를 맞게 됩니다.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거나 크게 낙심하며 술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지만,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 곁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19절 말씀은 우리가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합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가장 가깝고도 친밀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가족은 기쁨을 나누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어 반으로 만들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정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서로에게 선물의 역할을 다하며 행복을 누리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가족이 그렇게 합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쁨 마음으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해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말씀은 임마누엘의 복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 온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 낙심하기도 했고, 고난 속에서 절망하기도 했지만, 모든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도우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제아무리 스스로 뛰어나고 잘난 사람이라도 연약함이 있기 마련이고, 부모가 자녀를 돕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는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해 하나님 안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감사와 행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